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4. 14. Vol. 15

■ 농정이슈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위한 웨이버 부결

■ 정책브리핑

기상청,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 가능성 높아

■ 연구지원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위한 웨이버 부결〉

-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위한 웨이버* 요청 다시 부결**]** 4.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미국·캐나다·태국·호주 등과 합의 도출 실패**
※ 웨이버(waiver):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3조 의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WTO 회원국의 의무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 재검토

〈웨이버(2012~2017) 근거: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3조에 따른 의무면제〉

- 9.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 ※ 필리핀 웨이버의 상품무역이사회 상정: (1회) '12.3월 → (2회) '12.6 → (3회) '12.11 → (4회) '13.3 → (5회) '13.10 → (6회) '14.4

- **[필리핀, 쌀 관련 주요 잠정 합의사항]** ① 쌀의무수입물량(MMA) 2.3배 증량(350천 톤 → 805), ②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쿼터(CSQ)* 제공(3개국 138천 톤, 7개국 755), ③ 관세율 감축(40% → 35)과 ' 17.7월 이후 관세화로 전환

※ 호주·중국·태국 기존 3개국 138천 톤에서 추가로 희망한 4개국(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모두에게 제공하여 총 7개국 755천 톤으로 **5.5배 증량**

-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 쌀 이외의 관상품목 관세 인하 등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 필요성 제기**

※ 양자 간 논의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관상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SPS(위생검역) 이슈 등 쌀 이외의 사항에서 상당한 추가 양보에 대해 논의

- **[조속한 추가 협의 추진 전망]** ' 12.3.30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쌀 관세화 웨이버 신청 이후, **2년 가까이 WTO 농업협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한 추가 협의 추진** 예상

- **[시사점]** 필리핀, **상당한 대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유예 위한 웨이버 부결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렵고, 대가도 클 것**

- **(한국에도 쌀 시장 개방 영향 전망)** 금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 시사

자료 : NEWSis 매일경제·서울경제·주경재·YTN·이데일리·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KBS·한국경제(2014.4.10.) / 아시아투데이·해럴드경제(2014.4.1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2014.4.9.)

한-호주 FTA 공식 서명

- **[한-호주 FTA 공식 서명, 4.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 한-호주 FTA 공식 서명(4.8일)
 - ※ 지난 '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 개최, '13.12월 한-호주 FTA 실질 타결 선언
- **(의의)** GDP 기준 FTA 시장규모 57.3% 확장, 향후 10년 간 소비자 후생수준 약 16억 달러 증가 예상
- **(기대효과)** 세계 12위 경제대국 호주시장 내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자원공급
-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계획)** 한-호주 FTA뿐만 아니라 한-캐나다 FTA(3.11일 타결)까지 종합하여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 수립

<한-호주 비전성명 채택>

- **[한-호주 정상회담 개최, 4.8일]** 외교안보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향 제시할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Vision Statement on a Secure, Peaceful and Prosperous Fu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채택
 - **[주요내용]** 총 22개항으로 구성,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양국 관계 미래 발전 방향 포괄적 제시
 - ※ 다양한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의지 표명, 한-호주 FTA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정 조속 발효 노력 등
- 자료 : MBN(2014.4.7.) / 내일신문문화일보(2014.4.8.) / 경향신문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헤럴드경제(2014.4.9.) / 농수축산신문(2014.4.10.) / 농민신문(2014.4.11.)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호주 통상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청와대 뉴스_「한-호주 비전성명 채택」(2014.4.8.)

<TPP 참여국(페루, 칠레)과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 **[페루, 칠레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페루(4.8일), 칠레(4.10일) 각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위한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 ※ 앞서 미국-캐나다(4.3일)와 협의 마친 상황, 나머지 TPP 참여국과는 협의 일정 조율 중
 - **[향후계획]** 4월 말까지 2차 협의 마무리, 조만간 나올 산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상반기 중 TPP 협상 참여 여부 결정
- 자료 : 경향신문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2014.4.8.)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_「TPP 참여국과의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2014.4.7.)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결과>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개최]** 4.2~4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
 - ※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으로 구성,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 우선 타결, 발효(2013.5.1)
- **(진행상황)** 제3차 협상('11.3월)까지 진행 후 중단되었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13.8월 재개, '14년 상반기 중 실질적 타결 목표로 협상 진행
 - ※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협상 개시하여 1년 내 타결 목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 **[협상결과]**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잔여쟁점 조항과 서비스 양허안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협상 진행
 - ※ 협정문 협상은 일부 핵심 사항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 **(서비스 분야)** WTO DDA 수정양허안 수준 넘는 진전된 시장개방 양허안 협의
- **(투자 분야)**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 방식에 합의, 유보안 교환
 - ※ 터키가 과거 투자 분야협정에서 투자 자유화를 약속한 전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일단 협상의 진전인 것으로 평가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수정 양허안

· '01년 출범한 도하 라운드(DDA) 협상에서 한국은 '03.4월 1차 서비스 양허안 제출 후, '05.6월 양허 수준 제고하여 수정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 체결된 WTO GATS(서비스무역 협정) 보다 높은 양허 수준 지향

- **[향후일정]** 제7차 협상, '14.6월 말 서울에서 개최, 실질적 협상 타결하기로 합의
- 자료 : 경향신문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YTN이투데이KBS파이낸셜데일리(2014.4.7.)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_「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제6차 협상 결과」(2014.4.7.)

FTA 피해보전직불금 집행 제대로 안 돼

- **[피해보전직불금 '09~'12년 동안 미집행]** ('09~'11년) 250억 원, ('12년) 600억 원 예산 배정했지만 전부 불용
 - ※ 박주선 의원,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현황' 자료 결과(4.8일)
- **(정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12년 요건 완화해 '13년 600억 원 예산 중 261억 원 지급
 -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6조는 정부가 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 입은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FTA 발효일부터 10년 동안 시행

☞ 농정이슈

-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3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600억 원 중 338억 원 폐업지원금 예산으로 전용
※ (예산집행 현황) '13년 폐업지원금신청 금액 2,183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7.3배, 실제 지급된 폐업지원금은 800억 원 이상
- **[FTA 기금, 애초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아]** 농민 지원을 위한 FTA 기금 자산 규모는 '13년 말 기준 8,212억 원(유동자산 465, 투자자산 7,747)에 불과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조는 정부가 '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7년 동안 1조2,000억 원 기금 조성하도록 규정

자료 : 경향신문-한겨레(2014.4.9)

<2013년 농특세 예산 51% 미집행>

- **[농특세* 4년간('10년~'13년) 1조7,084억 원 불용]** 김영록 의원, 연도별 농특세 집행현황 분석 결과 농특세의 세입부족으로 지난 '10년 이후 4년간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1조7천100억 원 미집행**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
※※ 사업 포기한 불용예산: ('10년) 167억 원 → ('12년) 4,245 → ('13년) 1조2,672
- **['13년 농특세 51% 미집행]** '13년 집행 예정이었다가 예산부족으로 '14년 이월된 예산은 1조9,906억 원, '13년 농특세 51%가 당초 계획과 달리 미집행
※ 농특세 이월예산: ('10년) 5,618억 원 → ('11년) 5,426 → ('12년) 3조689 → ('13년) 1조 9,906, 4년간 총 6조1,638억 원

- 불용예산...당초 농업예산으로 확정되었다가 농특세 예산부족으로 사업자체가 사라진 사업예산
- 이월예산...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진행하는 사업예산

- **[농업예산, 불용예산만큼 증액해야]** 농업예산을 부풀리기식 전시예산으로 해서는 안되며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해서라도 불용예산만큼 증액 편성 필요
※ 농특세 불용, 이월로 인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농업용수개발,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재해대책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농업의 경쟁력강화,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투입될 예산사업

자료 : 축산신문(2014.4.8.) / 원예산업신문(2014.4.9.)

☐ 삼겹살 가격 상승으로 한우 소비 급증

- **[삼겹살 가격 급등]** AI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살처분 이후 대체 수요가 몰린 삼겹살 가격 급등

☞ 농정이슈

- **(상승원인)** '13년 모든 감축, '13.11월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 공급 감소한 반면, 올해 미세먼지·황사, 봄나들이 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당분간 상승세 지속 전망
- **(한우, 수입 소고기, 수입 삼겹살 대체 수요 증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 지난해 수준인 한우, 수입 소고기, 수입 삼겹살 등으로 대체 수요 증가
※ 대형마트, '14.3월 한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국산 돼지고기 매출 추월
자료 : YTN파이낸셜뉴스(2014.4.5.) / 머니투데이MBN·이데일리·조선일보·한겨레·한국농어민신문·헤럴드경제(2014.4.7.)

<제주시, 10년 만에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병 차단 방역>

- **[제주시, 10년 만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제주도 한림읍 모 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해 **긴급 차단 방역**
※ (4.4일) 포유자돈 5마리 극심한 설사 증세 신고 → (4.7일)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가 이들 포유자돈의 가검물로 병성감정 결과 확진 판정
자료 : news1:NEWSis·코리아데일리(2014.4.8.) / NEWSis·연합뉴스(2014.4.9.)

☐ 농식품부, 농촌 마을 가꾸기 추진

- **[농촌 마을 가꾸기 추진]** 농식품부 및 농림기관 직원들(총 18개 기관, 1만 여명)이 주민과 함께 4월 말까지 700여개 농촌마을 진입로와 마을회관 주변에 꽃과 묘목을 심고 마을 주변 정비
- **(목적)**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농촌의 활력 증진 도모
- **(자발적 참여와 선의의 경쟁 유도)** 연말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우수한 마을과 지자체 포상
자료 : 국민일보·NEWSis·머니투데이·서울신문·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4.4.9.) / 농수축산신문(2014.4.10.) / 농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4.4.1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농림기관이 함께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꽃나무 심기로 농촌경관 개선 -」(2014.4.9.)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논의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추진 위해 본격 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9~10일간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추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 미국, EU, 호주 등 금년 초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농정이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기준

2013년까지	2014년부터
식약처에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 표시 판매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동등성인정 받은 유기 가공식품만 국내에서 '유기' 표시 가능
<상호 동등성 인정이란?> -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제도가 국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검증될 경우 양국 인증이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제도 - WTO/TBT에서 제도 간 절차방법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성을 인정토록 규정	

- **[협상 시작됐지만 체결까지 난항 예상]**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혼입, 유기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허용물질 등의 경우 양국 간 인증 기준 차이 등이 주요 논의 과제
 - ※ 유기가공식품 GMO 허용... (한국) GMO 불검출 ↔ (미국) 비의도적 혼입 5%까지 허용
 - ※ 초식가축 유기농인증... (한국) 방목 X ↔ (미국) 방목 O
 - **[친환경농업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우려]** 친환경농업 보호·먹거리 안전 보장하는 유기가공식품 협상 촉구
 - **(국가 간 인증 기준 갭)**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실질적 점검 절차 없이 국가 차원의 동등성 포괄적 인정, GMO 문제식품공장식품첨가물 등 논란 소지 있고 국내 기준 보다 완화된 수입 유기식품 반입이 허용될 가능성 내재
 - **(6월까지 제도기간 설정)** 사실상 인증제 유예를 의미하는 제도기간 설정되면서 미국 등 수출국은 6월 말까지 국내 인증제 적용 받지 않고 자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출
 - ※ 동등성 협정 체결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결조건으로 알려지는데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제도기간이 법적근거도 없이 설정(감사원 감사 결과)
-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4.4.7.) / 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MBN·연합 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4.4.8.) / 농민신문·서울경제·서울신문(2014.4.9.) / 농수축산신문(2014.4.10.) / 농축유통신문·한국농업신문(2014.4.11.)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논의 본격 시작」(2014.4.8.)

여성농업인 농사일 절반 이상 담당 66.2%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식품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15세 이상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약 3개월(13.9.24~12.16)간 조사원이 해당 농가 방문하여 개별 면접 통해 조사

농정이슈

- **(여성농업인이 농사일 50% 이상 담당하는 비중) 66.2%**
 - ※ (결혼하면서 농업에 종사) 80.7%, (여성농업인 평균 영농경력) 32.8년
- **(여성농업인 위한 시급한 과제)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31.3%) 1순위**
 - ※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31.3% > 복지시설·제도 확대 28.7% >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19.6% > 보육·교육시설 확대 11.1%
- **[활용계획]**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16~’ 20년) 수립 등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료 : 농촌여성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4.7.)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여성농업인이 농사일 50% 이상 담당 비중 66.2%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제시 -」(2014.4.4.)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범위 공산품까지 확대

-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가공품까지 확대]** 관세청, 정부 3.0 실현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가공품까지 확대
 - ※ (‘13년) 60개 → (‘14.4월) 70(10개 추가: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 높은 품목 추가 선정
- **(소비자 정보 수요 충족)** 그동안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매달 수입가격 공개해 왔으나,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적 공개에 그쳐 소비자 정보 수요 충족 미흡
 - ※ 월별 수입가격 공개 농축수산물(60개): 농산물(고추 등) 26개, 축산물(쇠고기 등) 7개, 수산물(미꾸라지 등) 20개, 가공품(김치 등) 7개
- **[수입가격 분석결과]** 10개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은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약 2.7~9.2배 수준
 - 자료 : KBS-한국경제TV(2014.4.9.) / 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 경제(2014.4.10.)
 - 참고 : 관세청 보도자료_「10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 품목별로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약 2.7~9.2배 -」(2014.4.9.)

북한, 소 구제역 발병 공식 통보

- **[북한, 소 구제역 발병 세계보건기구(OIE) 공식 통보]** 북한, 돼지 구제역에 이어 소 구제역 추가 발병 사실을 OIE에 공식 통보, 미국의 소리(VOA) 4.5일 보도
 - ※ 지난 2월 평양, 황해북도 등지에서 돼지 구제역 발병했다고 OIE에 보고했으나 구제역이 소에까지 확산한 사실을 보고한 건 이번이 처음

농정이슈

- **(발병현황)** 3.14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 52마리 중 9마리 구제역, 그 중 1마리 폐사
- **(북한대응)**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접근 금지하는 등 **방역 강화, 소독 사업 진행**, 백신접종과 구제역 발생 동물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는 상황
 - ※ 북한에서 구제역이 계속 확산함에 따라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공동 운영 하는 북미 구제역 백신은행이 북한 요청 시 백신 지원 검토

자료 : KBS(2014.4.5.) / NEWSis-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4.4.7.)

<북한 경제 간부들, 중국 경제 특구·농촌 개발 노하우 학습>

- **[북한 경제 분야 간부들, 중국 경제 특구·농촌 개발 경험 학습]** 최근 북한 경제간부 시찰단, 광둥성 선전과 산시성 시안, 톈진 직할시 차례로 방문해 경제특구 개발과 신(新)농촌 개발 현장 집중 시찰, 중국 언론 4.6일 보도
- **(다양한 노하우 습득)** 나선, 신의주 등 국가급 경제특구 이외에 지방의 13개 경제개발구와 3개 관광특구 등 현재 수준과 개발 여건이 상이한 북한 내 개발 대상지들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노하우 습득하려는 것으로 분석
 -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3월 국가관광총국 친선참관단을 중국 상하이 등지에 보내는 등 최근 잇따라 중국 경제 시찰단 파견

자료 : YTNKBS(2014.4.6.) / 국민일보-헤럴드경제(2014.4.7.)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북한에 묘목 64만 그루 지원>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묘목 64만4,000그루* 북한에 지원, 4.2일]** 평안남도 운산군을 시작으로 4.12일경까지 북한 전역에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 전개, 미국의 소리(VOA) 4.4일 보도
 - ※ 수종은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소나무, 포플러 등
- **(지원목적)** 북한 여름철 홍수·산사태 예방 및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
- **[정부, 북한 산림녹화 중요성 강조]** 국무총리, 식목일(4.5일)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 나무심기 행사장*에서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구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
 - ※ 국무총리, 산림청장, 임업인, 대북지원 민간단체, 민통선 지역주민, 어린이 등 200여명 참석

자료 : 동아일보연합뉴스(2014.4.5.) / 동아일보(2014.4.7.) / 농수축산신문(2014.4.10.) / 한국농업신문(2014.4.11.)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기상청 을 하반기 엘니뇨 발생 가능성 높아

자료 : 기상청(2014.4.4.)

엘니뇨 현황 및 전망

- **[엘니뇨 하반기 발생 가능성]** 기상청, 4.4일, 현재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는 평년과 비슷(+0.3℃), **봄철 정상상태 유지**하다가 **올 하반기에 엘니뇨 발달** 예상
 - ※ 세계 유수 기상관측 기관의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 8월부터 해수면 온도 편차 0.5도 이상 예측

•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ño3.4 지역: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의 편차가 0.4℃ 이상(-0.4℃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 발달의 시작으로 본다

- **[각 분야별 대비 필요]**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 가능성 커짐에 따라 기상청은 각 분야별 주의 당부
 - ※ (한국 엘니뇨 발생 예) '97년과 '98년 엘니뇨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이상고온과 폭설, '98년 여름에는 집중호우 및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엘니뇨 발생에 따른 영향

- **[1997/1998년 엘니뇨 역대 최고]** ' 97.4월에 시작하여 ' 98.4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역대 가장 강한 엘니뇨**로 기록
- **[기온]** ' 97년 가을부터 ' 98년 여름까지 알래스카, 캐나다, 북미지역, 남미 서부 연안에서는 고온현상,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동부 연안, 지중해 부근의 유럽, 호주 동부, 동남아시아 일부, 일본 남부지역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편차
- **[강수량]** 북유럽, 시베리아 지역, 동아시아, 티베트 서부, 미국 서부 및 동부 연안, 호주 북부에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 캄차카반도, 인도 동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부 연안과 남부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기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개최 결과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개최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개최]** ' 14.3.31~4.4일간 중국 난닝(南寧)에서 개최, RCEP 16개 회원국* 총 500명 규모 대표단 참석
 -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AFP(ASEAN FTA Partners)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 (한국)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여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개최 결과

- **[논의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 아울러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에 대한 작업반 논의도 시작
 - **[상품 분야]**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의 기본 요소(element)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진행
 -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분야]**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및 협상범위와 계획(Scoping Paper) 중심으로 논의
 - **[기타]**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 협정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에 활발한 논의 진행
- **[협상평가]** 한국은 상품 분야 모델리티를 제안하는 한편,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제안서 발표하면서 **협상에 적극 참여** ⇒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향후계획 및 일정]**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지재권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 RCEP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제5차 RCEP 협상은 금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4.4.)

2013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64.5천 톤, 정부로 일괄 이관

□ 주요내용

- **[' 13년 공공비축 산물벼 64.5천 톤 정부 일괄 이관]** ' 13년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미국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을 통해 보관 중인 공공비축 산물벼 71천 톤 중 64.5천 톤* 정부양곡 창고로 일괄 이관
 - ※ RPC와 DSC가 자체인수를 희망하는 6,500톤(9%) 제외
- 산물벼...건조되지 않은 수확상태 그대로 매입한 벼(RPC, DSC가 건조하여 보관)
 - 포대벼...수분함량(13.0%~15.0%), 중량 등 벼 검사규격에 맞춰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한 벼
- **(공공비축 산물벼 정부양곡 창고 이관 기간)** 4.11일~5.31일
 - ※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 중인 전국 258개 미국종합처리장·건조저장시설 대상으로 인수 의향 조사 실시(4.3~9일), 20개 미국종합처리장 등이 총 6,500톤 산물벼 인수 희망
 - **(공공비축 산물벼 인도가격*)** ' 13년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에 수확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쌀값 변동률 반영·등급별 확정
 - ※ 인도가격(원, 조곡/40kg): (특등) 60,770 > (1등) 58,810 > (2등) 56,160 > (3등) 49,800
 - **[활용계획]** 각 사군의 정부양곡 창고로 이고하여 공매 없이 모두 정부 양곡으로 활용
 - ※ '13년 작황이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14년에는 정부양곡 공매 자체

농식품부, 전국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가이드북 제작·배포

□ 주요내용

- **['전국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가이드북' 제작·배포]**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전국 100개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일반현황 및 취급 농산물 현황 등 정보 제공**
 -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산지(產地)에서 생산자를 계열화하여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조직
- **[기대효과]** 상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의 판로개척(농업인)** 및 **안정적인 상품 확보(바이어)** 문제 해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4.10.)

연구지원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2014.4.7.) / 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2014.4.9.)

□ 최근 5년('08~'12년) 간 한국 ODA 규모 증가율 OECD DAC 회원국 중 1위

- ['08~'12년간 한국 ODA(공적원조) 규모 연평균 증가율] 18.8%*,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위, DAC 27개 회원국 전체 평균 증가율 0.8% 크게 상회

※ (한국) 18.8% > (호주) 16.3 > (스위스) 10.6 > (뉴질랜드) 6.6 > (영국) 4.8

※ ※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내 위원회로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

- (증가원인) '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상당수 국가들이 ODA규모를 축소 한데 반해, 한국은 점진적으로 확대

- [정부, 선진화된 ODA 정책 추진] 맞춤형 지원, 경제발전경험전수, 우리 기업·인력 진출지원 등 선진화된 ODA정책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

- (맞춤형 지원) 지역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개도국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병원 등 필수 시설 지원

※ 파키스탄 하수처리시설 건립('12~'15년), 캄보디아 아동병원 신축('11~'14년)

- (경제발전경험전수)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컨설팅, 기술 이전 지원

※ 경제개발 계획(알제리 등 13개국), 중소기업 육성전략 자문(베트남 등 13개국)

- (우리 기업·인력진출) 기술학교·다목적학교 건립, 청년인턴 등 우리나라 기업·인력 진출 지원

※ 베트남 한·베 기술학교 내 제과제빵과 개설(씨제이푸드빌), 케냐 수자원 확보시설 및 다목적학교 건립(선진엔지니어링), ODA청년인턴(수은)

- [향후계획]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ODA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효율화에 중점 추진

- (Win-Win형 ODA 중심)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확대 등 협력국과의 상생에 중점을 둔 Win-Win형 ODA 중심으로 추진

- (ODA사업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ODA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평가체계개선 등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ODA사업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 기관별 자체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및 외부 평가 확대

OECD DAC회원국 ODA 지원 실적

단위: 순지출, 백만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5개년)
DAC 회원국* 합계 (A+B)	122,718	120,487	129,007	134,607	126,881	0.8
A. G7 국가 합계	82,081	81,559	88,574	92,458	88,538	1.9
영 국	11,500	11,283	13,053	13,832	13,892	4.8
캐나다	4,795	4,000	5,214	5,459	5,650	4.2
미 국	26,437	28,831	30,353	30,920	30,687	3.8
프랑스	10,908	12,602	12,915	12,997	12,028	2.5
일 본	9,601	9,467	11,058	10,831	10,605	2.5
독 일	13,981	12,079	12,985	14,093	12,939	△1.9
이탈리아	4,861	3,297	2,996	4,326	2,737	△13.4
B. G7 이외 국가 합계	40,637	38,928	40,433	42,149	38,343	△1.4
한 국	802	816	1,174	1,325	1,597	18.8
호 주	2,954	2,762	3,826	4,983	5,403	16.3
스위스	2,038	2,310	2,300	3,051	3,045	10.6
뉴질랜드	348	309	342	424	449	6.6
노르웨이	4,006	4,081	4,372	4,756	4,753	4.4
핀란드	1,166	1,290	1,333	1,406	1,320	3.2
폴란드	373	375	378	417	421	3.1
스웨덴	4,732	4,548	4,533	5,603	5,240	2.6
벨기에	2,386	2,610	3,004	2,807	2,315	△0.8
덴마크	2,803	2,810	2,871	2,931	2,693	△1.0
룩셈부르크	415	415	403	409	399	△1.0
포르투갈	620	513	649	708	581	△1.6
체 코	249	215	228	250	220	△3.1
슬로바키아	92	75	74	86	80	△3.4
네덜란드	6,993	6,426	6,357	6,344	5,523	△5.7
오스트리아	1,714	1,142	1,208	1,111	1,106	△10.4
아일랜드	1,328	1,006	895	914	808	△11.7
아이슬란드	48	34	29	26	26	△14.2
그리스	703	607	508	425	327	△17.4
스페인	6,867	6,584	5,949	4,173	2,037	△26.2

주: 1) * 2013년 12월, DAC 28개 회원국 기준(12년 확정치, 한국('10년 가입), 아이슬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13년 가입))

2) ** 슬로베니아는 늦은 OECD DAC 가입('13.12.03)으로 ODA 통계 미제출

연구지원

2013년 한국 원조, 전년대비 1.5억 달러 증가한 17.5억 달러

- [' 13년 28개 OECD DAC 회원국 중 한국 ODA 규모 16위] 17.4억 달러, ' 12년 (15.9억 달러) 대비 9.2%*** 증가, 전년대비 순위 유지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2013년 공적 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4.8일)
 - ※ 환율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공식 발표치는 4.8% 증가
- [' 13년 한국 ODA 구성] 수원국에 물자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 13억 달러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4.5억 달러로 구성

2013년 한국 ODA 잠정통계

단위: 순지출,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비중
ODA(A+B)	1,325	1,597	1,744	9.2	100.0
양자간 ODA(A)	990	1,183	1,299	9.8	74.5
무상원조	575	715	800	11.9	(61.6)
유상원조	415	468	499	6.5	(38.4)
다자간 ODA(B)	335	414	445	7.4	25.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양자원조] 무상원조 8억 달러(전년대비 11.9%↑), 유상원조 5억 달러(6.5%↑)
 - ※ 무상 對 유상 원조 비율 62:38
 - (지역별) 아시아 중점기조가 유지되면서 중남미에 대한 지원 소폭 증가
 - ※ 아시아 7.3억 달러(55.9%) > 아프리카 2.8(21.3) > 중남미 1.0(7.4) > 중동 0.4(3.1)
 - (분야별) 교통·물류, 교육, 보건 등 사회·경제 인프라 부문에 더 많이 지원
 - ※ 교통 및 물류 2.3억 달러(17.7%) > 교육 2.0(15.4) > 보건 1.4(10.8)
- [다자원조]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3억 달러(전년대비 5.6%↑) 출자·출연, UN 등 국제기구에 1.5억 달러(전년대비 11.2%↑) 출연
- [향후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 위해 노력 지속
 -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25명 구성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